

안녕하십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입니다.

올 봄에는 변덕스러운 비소식으로 불편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무엇보다도 봄마다 찾아오던 불청객인 산불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국의 산과 들을 갖가지 색깔로 장엄해주는 봄꽃들도 막바지에 이르는 듯하고, 이제 짙은 초록으로 바뀌어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불기 255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러분과 책 한 권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 인생학교』는 수행에 관심이 깊은 현장의 기자가 서양 문명과 철학 사상의 발상지인 그리스를 직접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며, 세속의 삶을 기꺼이 버리고 은둔 수행자의 신비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수도자들의 삶과 우리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수많은 철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던 기록입니다.

이 책과 함께 떠나는 그리스 시간 여행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이 던지는 삶과 죽음, 소유와 무소유, 탐욕과 자족에 관한 근원적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 고유의 신화·문학·종교 공부까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안내해주는 책 『그리스 인생학교』는 우리가 여행길에서 무엇을 보든, 누구를 만나든 배울 점이 많은 ‘인생 학교’의 학생임을 새롭게 일깨워 줍니다. 어찌 보면 수행자의 삶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학생’의 길을 걷는 일일지 모릅니다.

꽃비 내리는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 마침내 우주법계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이 되신 어린 싯달타 왕자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80년 삶도 ‘인생학교’의 학생이고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내드리는 이 책이 삶과 세상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 나름의 해답을 찾는 좋은 안내서가 되어, 우리 모두 뭇 중생들의 안락과 행복을 전해주는 보현행자(普賢行者)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따뜻한 마음과 손을 모아 아름답고 신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